UNISDR
The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With funding support from:

Ministry of Public and Security

Incheon Metropolitan City

Government of Samoa

Samoa Chamber of Commerce& Industry Inc.

관광분야와 관련산업을 위한 재난과 기후변화 위험관리 비지니스 사례

사업영속성계획에서부터 위험경감사업 시행까지

2016. 2.16-2.17, 사모아제도 아피아 -지진, 싸이클론, 쓰나미와 같은 위험요인들은 본래 자연적인 것이지만, 재난위험이 사업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전혀 자연적이지 않다. 이는 인간이 만들어낸 판단의 결과이다. 사업가들은 신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 건축물, 물품공급망과 같은 분야에서 '복원력 강화' 기회를 찾고있다. 더 큰 기업들은 공급업체와 파트너인 중소기업의 복원력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의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는 고용, 생산성 향상, 세금수입과 복지의 확보를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

사모아는 싸이클론, 지진, 쓰나미를 포함한 여러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다. 2012 년에 발생한 사이클론 에반으로 연간 GDP 의 약 20% (미화 2 억불 이상) 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UNISDR ONEA-GETI 는 민간기업들이 재난위험경감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사업영속성관리 비용을 감소할 수 있는 능력개발을 목표로 민간기업을 위한 훈련을 제공했다.

그 결과, 사모아는 자신들만의 재난위험경감 활동사례를 만들었다. 참가자들은 재난위험관리에 대하여 배우고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정부와 함께 위험경감을 위해 협력하는 방법을 알게되었다. 사모아 상공회의소 최고경영자인 안 모아나누(Ane Moananu)는 " 이번 워크숍은 민간분야의 재난복원력에 대해 더 강력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사모아 몇몇 기업은 자체적으로 재난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과 시스템을 포함한 영속성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더 나아가 기업이 지역사회의 복원력 강화에 기여하고 적극적으로 위험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이 참여하는 위험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기업가들이 인식하는 구체적 조치가 필요한 핵심분야는 안전한 공공시설, 건축규제시행, 안전한 지역에 지원저장소 확보, 직원들을 위한 훈련, 국가훈련 참가 등에 정부가 재투자하는 것이다.

워크샵은 사모아정부, 사모아 상공회의소, UNISDR 동북아사무소 및 재난경감 국제교육훈련 연수원에서 주최했다.

더보기: http://www.preventionweb.net/events/view/48399
UNISDR ONEA-GETI: http://www.unisdr.org/incheon